

공정거래위원회

지정판매처

분노한 백만명의 시민들이  
'박근혜 퇴진'과 '박근혜 구속'을 외치고 있습니다.  
들어야 할 사람이 청와대에 있는데,  
경찰은 매번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청와대 인근에서  
집회와 행진을 못하도록 금지합니다.

참여연대는 법원에 '행진금지가처분' 신청을 하여  
3주 연속 경찰의 금지통고를 무력화시켰습니다.  
법원도 헌법 상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 
참여연대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.  
시민들은 청와대를 향해 보다 가까운 곳에서  
'박근혜 퇴진'을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대통령과 공권력이 유린한 헌법,  
참여연대는 헌법의 가치와 시민의 권리를 지켜내겠습니다.  
정부지원금 없이 오로지 회원의 회비로만 운영되는  
참여연대에 회원으로 함께해주세요!

- 청와대 앞 1인 시위 강제연행, 손해배상 판결! 2002. 11.
- 야간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(위헌)! 2009. 9.
- 평화로운 집회 시위를 차단하는 차벽 설치에 위헌! 2011. 6.
- 백남기 농민 폭력진압과 자의적인 집회 불법화 등  
한국 정부의 집회시위 탄압 실태 유엔에 알리기 2016. 1.
- 세월호 참사 추모행진 해산 명령한 경찰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2016. 9.
- 청와대 부근 행진을 금지한 경찰 상대 행진금지 가처분 3연속 인용 2016. 11.



**청와대에서  
더 잘 들을 수 있게!**



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

**참여연대 회원가입 02-723-4251 www.peoplepower21.org**



'참여연대'(엘로아이디) 친구추가하면, 정기적으로 참여연대의 소식을 보내드립니다. 제작 2016. 11. 26.